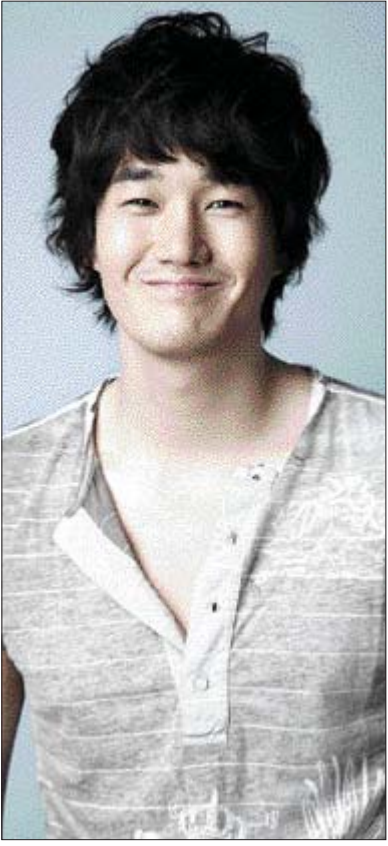


영 화

양준익 유지태 구혜선 류현경

명감독 꿈꾸는 명배우들



유지태

명배우에 이어 명감독 반열에 들어선 클린트 이스트우드 처럼 영화 감독을 꿈꾸는 배우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단편 영화 제작부터 시작해 차곡 차곡 이력을 쌓고 있으며 연기까지 도맡은 장편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수많은 독립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독립영화계의 스타'였던 양익준은 첫 장편 연출작 '똥파리'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각본과 주연까지 맡았던 이 영화로 양익준은 제11회 프랑스 도빌 아시아영화제 그랑프리인 대상에 비롯해 제8회 뉴욕아시아영화제 신인감독상, 제44회 체코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넷팩상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대한 열정과 경쟁, 그리고 그들의 미묘한 삼각관계를 아름다운 영상과 신비로운 음악으로 그린 영화다. 시나리오를 직접 쓴 구혜선은 연출과 연기는 물론, 음악 선곡까지 직접 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발휘했다.

구혜선은 이미 2009년 단편 '유쾌한 도우미'로 제26회 부산 아시아단편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올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또 일러스트레이트 픽션 '탱고'와 피아노 소품집 '숨'을 내놓는 등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방자전'에서 독특한 캐릭터의 향연으로 열연한 류현경 역시 단편



똥파리



초대



요술

각본·주연·연출 '1인 3역' ... 출품작 화제

박중훈·정우성도 조만간 감독 데뷔할듯

작품상과 연기상 등 30여개에 육박한 상을 휩쓸었다.

배우 유지태 역시 오랫동안 영화감독의 꿈을 키우며 단편 영화를 제작해왔다.

'자전거 소년'(2003)으로 데뷔한 그는 2005년 단편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로 제23회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에서 후지필름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단편 '나도 모르게'로 제10회 쇼트쇼츠 국제단편영화제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또 그의 4번째 연출작인 엄지원 주연의 단편 '초대'는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인디판다국제단편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성장 영화 '소년이 되다'의 시나리오를 다듬고 있다.

최근 배우 출신 감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혜선이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구혜선은 장편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요술'은 예술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젊은 음악가들의 음악에

영화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류현경이 연출을 한 '광태의 기초'에는 배우 박철민을 비롯해, 영화 '4교시추리영역'의 강소라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광태의 기초'는 13회 충무로국제영화제의 한 섹션인 '충무로대학생 단편영화제 본선'에 진출했으며 올해 아시아 단편영화제에도 출품했다.

최근 영화 '내 강과 같은 애인'을 선보인 중견 배우 박중훈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영화 감독의 꿈을 밝혔다.

박중훈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감독을 하려 한다. 오랜 시간 그런 생각을 했다"며 "작가와 시나리오를 쓰러 서울을 떠나 열흘간 조용한 곳에 간다"고 밝혔다. "배우로는 출연 안 할 것"이라며 "내년에 촬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밖에 정우성은 자신이 직접 연출한 뮤직비디오 모음을 한 편의 단편영화로 묶어 2002년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인 미장선 단편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유령작가



전 영국 수상의 자서전에 담긴 거대한 음모와 진실을 파헤쳐 들어가는 한 유령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정통 스릴러물이다. 유령작가(Ghost writer)는 대필 작가를 말한다.

선임자의 죽음으로 전 영국 수상 아담 랭의 자서전을 맡게 된 유령작가는 자서전을 작업하면서 아담 랭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자서전 집필 대필작가

의문의 죽음 배후에 얽힌

국가 권력 음모 파헤치기

아담 랭과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살로 결론지어졌던 선임자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단서들을 하나 하나 추적하며 진실을 밝혀 나간다.

'테스' '올리버 트위스트' '피아니스트'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완 맥그리거, 피어스 브로스난, 올리비아 윌리엄스 등이 주연을 맡았다. '당신들의 조국' '폼페이' 등을 쓴 BBC 정치부 기자 출신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춤추며 얽힌 단서들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서스펜스의 희열을 느끼게 한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국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National Museum Namgol-dang is here) with details about the museum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If you want to live a successful life, change your name) with details about the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星谷傳統文化研究會'.